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프랜차이즈 모델 도입

# 야구 · 축구처럼 스포츠로 도약

승강제 폐지 · 선수 최저연봉 인상  
리그 수익 배분 등 도입 절차 시작

2021년부터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가 야구나 축구와 같이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되는 스포츠로 도약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모델'을 도입한다.

프랜차이즈 모델은 리그와 팀이 파트너가 돼 하나의 공동체로서 리그 관련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고 운영 수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이미 북미와 중국은 2018년부터, 유럽은 2019년부터 프랜차이즈 모델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주요 지역 중에는 한국인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상황이다.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개발 및 유통사 라이엇 게임즈는 6일 LCK 프랜차이즈 모델 도입을 발표하며 팀 · 선수 · 팬 등의 입장에서 지속 가능한 선순환 e스포츠 생태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LCK를 수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성장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승강제 폐지와 2군 리그 창설, 선수 지원 강화다.

승강제는 2부 리그로의 강등 위험 때문에 팀들이 각종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2020 LCK 스프링 종료 직후 진행되는 승강전을 끝으로 승강제는 폐지된다.

라이엇 게임즈는 "팀을 2부 리그 강등 위험이 사라지면서 머천다이즈나 스폰서십 등 다양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팀들은 수입원을 다각화할 수 있고 수익도 증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팀들에게는 리그 차원의 수익도 분배돼 한층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출 수 있게 된다.

라이엇 게임즈는 "증대된 수익은 팀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져 전력 강화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리그가 더욱 흥행하면서 리그의 전반적인 가치를 높이고, 다시 수익이



2021년부터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가 야구나 축구와 같이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되는 스포츠로 도약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모델'을 도입한다.

각 팀에 분배되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해 장기적으로는 LCK의 경쟁력을 높이고 구성원 모두가 더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며 "팀과 선수들 모두 더 나은 환경에서 게임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면서 '제2의 페이커'와 같은 프랜차이즈 스타의 탄생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2015년 리그제 전환 이후 6년간 자리를 지켜왔던 승강제가 폐지됨에 따라 2021 시즌부터 LoL 챌린저스 코리아는 중단되고 2군 리그가 창설돼 그 자리를 대신한다. 프랜차이즈 팀들은 선수 육성을 위해 의무적으로 2군 팀을 보유, 운영해야 한다.

선수들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연 2000만원의 최저연봉은 2021년부터 약 3배 높은 연 60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국내 여느 프로 스포츠와 비교하더라도 최상위 수준의 최저연봉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라이엇 게임즈는 "2018년부터 약 2년 가까이 프랜차이즈 리그로의 전환을 고민해왔으며, 지

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외부 전문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적인 타당성과 다양한 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프랜차이즈화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발판으로 팀과 스폰서들의 투자를 이끌어내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통해 야구나 축구처럼 e스포츠도 부모와 자녀 등 여러 세대가 함께 즐기고 응원할 수 있는 '멀티 제너레이션 스포츠(Multi-generation Sports)'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라이엇 게임즈는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프랜차이즈 팀 모집 절차에 돌입한다. 오는 6월 중순까지 접수된 지원서를 토대로 서류 검토, 면접 등의 심사 과정을 거쳐 9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LCK에 프랜차이즈 모델이 도입되면 LoL e스포츠의 4대 주요 리그(한국, 중국, 북미, 유럽) 모두 프랜차이즈 리그가 된다. /뉴시스

## 신진서 9단, 한국바둑 4개월 연속 1위

박정환 9단 2위 차지

신진서 9단이 4월 랭킹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4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6일 한국기원의 '한국 프로기사 랭킹'에 따르면, 신 9단은 랭킹점수 1만119로 1위에 등극했다.

3월 한 달 동안 신 9단은 2019-20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2승 1패, 소팔 코사놀 최고기사 결정전에서 2승, 21기 맥심커퍼배에서 1승 1패를 기록했다. 5승 2패의 성적을 올린 신진서 9단은 랭킹점수 16을 잃었지만 1위를 지켰다.

2월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박정환 9단은 3월 한 달 동안 3승 1패를 기록하며 컨디션을 회복했다. 박 9단은 랭킹점수 7점을 얻어 9962점으로 신진서 9단과의 격차를 좁혀나갔다.

2019-20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에서 신진서 9단의 29연승을 저지시키며 팀에 첫 우승을 안긴 신민준 9단이 4개월 연속 3위에 올랐다. 신민준 9단은 3월 한 달 동안 6승 1패를 거둬 랭킹점수 43점을 추가하며 9835점으로 100위권 내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었다.

변상일 9단이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4위를 차지했다. 김지석 9단과 이동훈 9단은 5위와 6위로 자리를 맞바꿨다.

강동운 · 박영훈 9단이 지난달과 같은 7·8위에 랭크됐다. 이지현 9단이 한 계단 오른 9위, 안성준 8단이 한 계단 하락한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신진서 9단

100위권 내에서는 2019-20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활약한 조한승 9단이 세 계단 점프한 16위에 오르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여기까지 중에서는 최정 9단이 네 계단 내려앉으며 22위에 자리했으며, 오유진 7단은 지난달과 같은 98위를 차지했다.

한편 2009년 1월부터 레이팅 제도를 이용해 발표한 한국 기사랭킹은 올해 2월부터 개정된 랭킹제도를 도입해 발표한다. /뉴시스

## 코로나19 확산 방지 엠블럼 공개

KBO, 감염병 종식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일환으로 제작  
8일까지 공식 인스타그램 통해 야구 팬들 대상으로 공유 이벤트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엠블럼을 제작, 6일 공개했다.



이번 엠블럼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KBO는 "한국 고유의 삼태극 색상 빨강, 파랑, 노란색의 회오리 문양인 KBO 공식 엠블럼에 방역과 에터켓을 상징하는 마스크를 입힌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캠페인용 엠블럼은 손 씻기와 체온 체크, 방역 등 각종 예방수칙을 표현한 캐릭터로도 제

작됐다.

KBO는 이번에 제작된 엠블럼과 캐릭터를 'KBO 코로나19 예방 수칙' 등 다양한 제작물에 활용해 방역과 예방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선수단과 야구 팬들의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KBO 리그를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NS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KBO는 8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야구 팬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캐릭터의 'KBO 코로나19 예방 수칙' 공유 이벤트를 진행하고, 추첨을 통해 커피 교환권 등 선물을 증정한다. /뉴시스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 EPL, 6월 재개 가능성 생겼나?

영국 정부와 논의 진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가 영국 정부와의 논의 진전으로 6월 재개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비러'는 6일(한국시간) "EPL이 6월 리그 재개와 관련해 영국 정부와 진전을 이뤘다"고 보도했다.

단, 무관중 경기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당국의 엄격한 통제 속에서 관중 없이 경기를 치르는 식으로 재개 방향을 잡았다.

구단들도 사무국과 정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 이뤄지자 긴급회의를 통해 무관중으로 치르는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앞서 EPL은 이달 말까지 리그 일정을 모두 중단했다.

5월 재개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게 시간을 벌며 시즌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중계권료, 스폰서 등 재정적인 부분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무관중으로 치르는 만큼 팬들이 TV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중계 경기 수를 확대하고, 무료 채널인 지상파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영국 보건당국은 몇 주 안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가라앉길 기대하고 있다. 6주 후인 5월 중순께 확산세와 규모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뉴시스

진안고원의 **진안 홍삼**




## 이래서 다릅니다

- ✓ **전국유일** 홍삼특구!
- ✓ **세계유일** 홍삼명인!
-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 **진안인삼** 사용!
- ✓ **국가지정** 홍삼연구소의 **성분검증!**
- ✓ **진안군수** **품질인증!**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www.jinansam.com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

진안홍삼연구소가 검사, 관리하고 진안군이 품질을 인증한 제품에만 사용되는 **마크**입니다.